

서로 외면하는 지방의대-지역학생... 인재선발 ↓ 자퇴생 ↑

(지방의대)

(지역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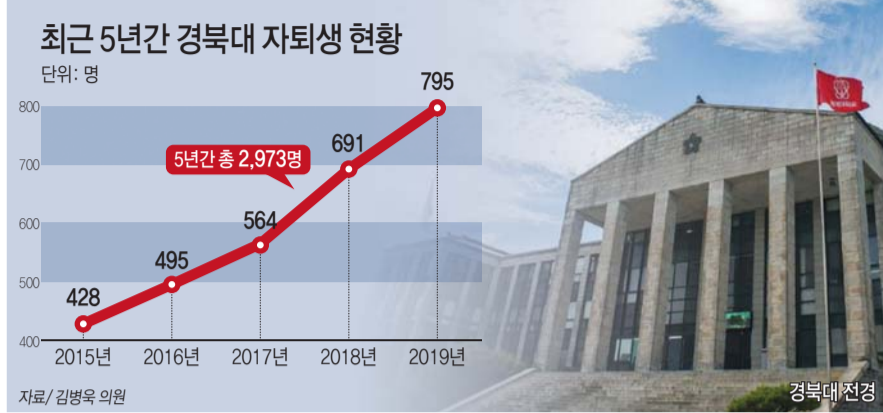
2020 국정감사

지역인재 권고비율 미충족 대학 30%
한림대 의예과, 지역인재 3명 선발
경북대 자퇴생 5년간 3000명 달해

지난해 대입에서 지방대 의·약학 계열 대학 39곳 중 12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가 39개 중 12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0%)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권역의 권고 비율은 15%다.

자료를 보면 올해의 경우 강원지역은 한림대 의예과가 전체 정원 78명 중 3.8%인 단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대 한의예과는 5%인 3명 밖에 되지 않고 울산대 의예과도

40명 정원 중 5명 선발에 그쳤다. 강릉원주대도 정원 42명 중 14.3%인 6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기준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넘는 대학은 ▲ 동아대(의예과) 83.7% ▲ 경북대(의예과) 69.1% ▲ 전북대(의예과) 66.9% ▲ 전남대(의예과) 66.4%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학생을 외면하는 동안, 대학생들도 지방 대학에 등돌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경북대 자퇴생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새 자퇴생은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해 타 국립대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총 2973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대의 입학정원은 4961명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약 12% 가량이 자퇴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경북대 측에 따르면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뿐 아니다. 전국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자퇴 문제를

공동적으로 겪고 있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2014년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했다. 다른 대학도 20~40% 자퇴생이 증가했지만 2배가 증가한 것은 경북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필기전형 바꾸는 코로나... 온라인화·미 실시

국내 주요 그룹 하반기 채용

삼성, LG, SK, KT 등 신입사원 총원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선발방식 급변

삼성, LG, SK, KT, CJ, 포스코,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하반기 공채, 수시, 인턴 후 직원선발 등을 통해 신입사원 총원에 나섰다. 선발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서류전형 이후 절차 역시 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2020 하반기 기업별 신입공채 인적성 시험 실시방식'에 따르면, 그간 신입공채 방식을 유지한 주요 기업들에서는 9월 초 서류접수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10월에 대규모 필기 시험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10월 하반기는 기업별 인적성 시험이 이어진다.

그러나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존의 지필시험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는 등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

먼저 삼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를 예정이다. 일정은 이달 31일(토)과 내달 1일(일) 양일간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삼성은 응시자 키트를 발송했고,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하반기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LG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로 전환했고, 이달 계열사별 시험

(하반기 기업 필기전형 채용방식)

분류	기업	필기전형
온라인	삼성	온라인 GSAT 실시
	LG	온라인 인적성검사
오프라인 (병행)	롯데	실시 (L-TAB)
	SK	실시(SKCT)
	포스코	실시(PAT)
	KT	실시(인적성검사)
미 실시	CJ	인턴십 대체
	신세계	인턴십 대체
온라인 코딩 테스트	카카오	실무역량 검증
	네이버	
	NHN	

/인크루트

을 실시했다.

SK, KT, 포스코, 롯데는 오프라인 시험을 유지한다. 먼저 SK그룹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일은 이달 25일이며, 일부 계열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포스코는 이달 24일 인적성검사(PAT)를, 나머지 계열사는 AI역량검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KT도 지난 주말 지필시험을 실시했다. 올해 첫 공채를 폐지한 KT는 하반기 6주의 인턴기간을 거치는 대졸인턴제를 도입했다.

하반기 디지털전환 부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중인 롯데그룹은 온라인 인성 검사와 오프라인 직무적합검사를 병행

해 실시하며, 계열사별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CJ와 신세계는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CJ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로 대체한다. 신세계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프로페셔널 인턴십 전형'으로 구직자를 평가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13년 일찍이 신입사원 모집시 인적성 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코로나 여파로 AI채용을 도입한 기업도 늘었다. GS 주요 계열사가 인적성 검사 대신 AI역량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외 다수 기업의 채용전형에 온라인 AI채용전형이 포함됐다.

끝으로 카카오, 네이버, NHN 등 하반기 개발자 공채를 진행한 주요 IT기업들의 경우 모두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공통점도 갖는다.

카카오는 간단한 인적사항 작성 이후 대대적인 코딩테스트를 통해 실무역량을 검증한 뒤 1,2차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전형상의 특징이라면, NHN은 온라인 SW지식 테스트를 통해 직무역량을 검증한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삼성과 LG는 온라인, SK·KT·포스코는 오프라인, CJ와 신세계는 미 실시 등 차이를 보인다"라면서 "올해는 급변한 경영환경만큼이나 기업별 선발방식에도 유독 변화가 많은 한 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광운대, 광운로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대상 300만원 등 총 1300만원 상금

광운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일대를 대학문화가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9일 광운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서울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창의성, 실현가능성, 완성도, 적합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3팀 각 100만원, 장려상 4팀 각 50만원, 특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를 발족했다.

/인하대

인하대,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 발족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 적극 대응

인하대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이하 인대연)'를 발족하고 대학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생활 보편화로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인대연은 대학교육 혁신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변곡점에도 달한 교육을 진단하고 예측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파악해 긴급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할 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 의제를 도출하고 반영방안을 강구해 연차별,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인대연은 시작단계인 만큼 교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출발해 전문 교육기관과 솔루션 제공기관 등 교외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건국대, 고효율 수전해 촉매소재 개발

니켈하이드록사이드 동시 형성

건국대는 한혁수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미래에너지공학과·사진)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기존 백금 소재보다 60%가량 저렴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은 높은 새로운 수전해 촉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혁수 교수팀은 수전해 촉매 효율 향상을 위해 촉매 표면에 화학적 표면식각 공정을 적용,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니켈보라이드(Ni₂B), 반응물 흡착에 유리한 니켈하이드록사이드(Ni(O



Hx)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촉매 표면의 흡착 기능이 뛰어난 새로운 촉매 소재 설계

페러다임을 제시했다. 개발된 촉매를 사용할 경우 기존 귀금속 촉매에 상응하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수소 생산효율도 10%가량 높일 수 있다. 촉매 가격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진 기자